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키워드 정리특강

- 강의일정 민법 : 2017년 12/7(목) ~ 12/9(토), **오전**, 총 3 회
 민사소송법 : 2017년 12/11(월) ~ 12/12(화), **오전**, 총 2 회
 상법 : 2017년 12/13(수) ~ 12/14(목), **오전**, 총 2 회
 ※강의시간 오전 9:00 ~ 12:30

- 교 재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 강의특징 I. 효과적인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마무리 방법
 채점자는 답안을 꼼꼼하게 전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답안의 **목차 구성**을 보고 내용은 **키워드가 적시**되어 있는지 위주로 빠르게 채점을 합니다. 즉 채점자는 수험생이 답안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키워드가 답안에 현출**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 II. 강의의 특징과 강의수강의 방법
 본 강의는 사례형·기록형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정리·암기**하는 강의입니다. 즉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지에 **절대로 누락하면 안 되는 판례 문구** 위주로 정리·암기하는 강의입니다.
- 예컨대 사례형 또는 기록형 문제에 〈복대리의 표현대리〉가 쟁점으로 출제될 경우에, 출제자가 배정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26조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장을 전부 암기하여 답안에 그대로 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점자도 위 문장을 전부 읽고 답안을 채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복대리인의 권한 외 법률행위**” +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라고 키워드를 정리하고 이를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암기한 키워드에 살을 붙여서 답안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i) 교재는 출제예상쟁점에 대하여 답안에 현출해야 할 **판례문장을 제시**한 후에, 그 문장에서 **암기해야 할 단어에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키워드만 표시하면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원문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만 나열하지 않고 문장을 기재하고 키워드를 표시한 것입니다. (ii) 강의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이러한 쟁점이 ~~한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키워드는 ~~이고, 답안은 ~~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우고, **시험장에서 키워드가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동시에 암기도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펜과 연습용 답안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답안지에 중요 키워드를 쓰면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지만 예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 답안에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 선택형 점수에 비하여 사례형·기록형 점수가 저조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마무리 단계로 수강하기를 추천합니다.